



◇鄭賢華씨(25). 인천시 북구 청천동 도시락반찬배달점 「그린 엠」 인천북구체인점 주인.



무점포 ... 도시락반찬 전화주문배달 1994. 2. 21



점포없는 점포점

새벽 3시. 어김없이 분사로부터 도시락 반찬이 도착한다. 나도 그 시간이면 배달 준비가 끝난다. 고객들이 출근이나 등교하기 전에 반찬배달을 마쳐야 한다. 그래서 나의 하루는 남들보다 3시간 이상 일찍 시작된다.

1회용 용기에 담긴 반찬들을 고객들 가정 현관에 배달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비닐 랩과 무공해 용기에 위생적으로 포장된 반찬이다. 쏟아질 염려도 없고 냄새

새벽 3시간 가정배달 자본 천만원... 순익 50만원

도 안난다. 따로 옮겨 담을 필요도 없다. 「무점포 도시락반찬 배달점」.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의 정확한 이름이다. 말 그대로 가게가 없다. 집이 바로 가게인 셈이다.

집에 따로 주문용 전화한대 들어놓고 배달업을 시작했다. 점포없이 시작한 탓에 홍보가 힘들었다. 전단 배포를

점포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만큼 초기자본 부담이 없다. 물품보증금 5백만원, 그리고 가맹비 4백만원이면 체인점을 낼 수 있다. 배달편의를 위해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있으면 좋겠지만 자전거로도 충분하다. 0332(513)1667, 02(578)5088.

광고전략으로 정했다. 뜻밖에 반응이 좋아 두달여만에 회원 가구수가 1백여집을 넘게 됐다. 늦어도 7시면 모든 배달이 끝난다. 하루 4시간 근무인 셈이다. 광고하라, 주문받으라, 새벽배달하라. 1인3역에 정신 없이 바쁜 적도 많지만 낯시간은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

분사로부터 공급되는 도시락 반찬은 2천5백원과 3천원짜리 두가지. 메뉴가 557가지이며 매일 매일 새로운 반찬으로 바뀐다. 똑같은 반찬을 찾으려면 2주일을 기다려야 할 정도다. 특히 튀김이나 햄버거 스테이크처럼 아침

에 주부들이 요리해주기 힘든 메뉴가 반드시 하나 이상 들어간다.

반찬종엔 주문이 조금 줄어들지만 큰 문제는 없다. 평소 배달규모는 월 2천개가량. 마진은 30%선이며, 2천5백원짜리로만 계산해도 순익 월 1백50만원이 거뜬하다. 분가를 나들이 칠엔 야외용 단체 도시락도 배달해 수입을 조금 더 늘린다.